



3면

문 대통령-윤 당선인 핫라인 구축 '관심집중'

전주매일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음 2월 9일) 제297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여야 도당 입장은?

민주 “재도약 다짐” 국힘 “국민통합 이행”

김성주 의원 “도민 열망
받들지 못해 깊이 반성”

정운천 의원 “보수정당
후보 전복서 14.4% 지지
전복 공약 이행 노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과 양경숙·안호영 의원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른 전북지역 각 정당이 입장을 내놨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의 열망을 받들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재도약을 다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안호영·양경숙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들께서 80.6%의 투표율에 이재명 후보에게 82.98%의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저희가 부족했다.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많은 도민의 열망을 받들지 못했다. 모든게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회견문을 읽어 내려간 김성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다시 새로운 각오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격차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전복이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북도민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하고 정권 교체에 뜻을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뜻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과제와 전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비례)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면서 “더욱 더 세심하게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도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당의 책임”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반성과 혁신, 정치개혁의 뒤따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약속 꼭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다섯 차례 전북을 방문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손편지를 호남의 가정마다 보내 도민들께 큰 울림을 줬다”며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도민들께선 전북지역 보수정당 후보 역대 최다 득표율 14.4%의 지지를

보내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지지를 바탕으로 전북에 약속한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당선인과 함께 전북도민의 17만6,800표를 잊지 않고 깊이 간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보내주신 도민들의 격려와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결과가 아쉽지만, 민심의 평가인만큼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역균형발전 · 국민통합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국민 바람 · 소망 경청, 정의를 실현해 달라”
송하진 도지사, 윤 당선인에 공개서한 띄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 등 현안도 주문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개서한을 띄웠다. 송 지사는 10일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글을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을 경청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등 2가지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송 지사는 “이번 선거로 드러난 지역, 세대, 계층, 성별 등 모든 갈등과 대립을 아우르고 연대와 포용, 상생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은 국민통합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의 현안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 ▲새민금 국제공항 등 새민금 내부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는 2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지난 1차 신청을 통해 46호, 397억원이 접수됐다.

이 중 39호, 352억원이 선정됐으며,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263억원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

축산업 경쟁력 확보 · 축사 환경개선

도,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3일까지 추가 접수

가·농업법인이다. 신규신청은 만 50세 이하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축산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다.

지원 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

이다.

중소규모는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농가 분류는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이 기준이다. 농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농가, 신속한 자금집행 가능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무허가 적법화 농가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농가, 관련법 위반농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축사 신축·이전·개보수를 비롯해 급이·급수·환기, 분뇨처리, 경관 개선시설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축사시설(물링패드, 자동 급이기, 로봇차유기, 발정탐지기 등), 축산시설(계란선별기, 자동인큐베이터 등), 폭염축란대비 시설장비, 방역방제 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등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농가 생산성을 향상뿐만 아니라, 스마트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라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사 및 관련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3월 14일까지 신문 쉽니다.

순창이 참 좋다

순창여행

행복한 여행의 시작
자연과 체험이 있는 순창으로 오세요!

추위의 소금강 순창 강천산
경신산 가을 단풍

넓은 백사장과 맑은 물이 흐르는
황기호 캠핑장

수만년 물결이 만든
정군목 유령지